

발행인: 홍민표	05029
편집인: 남윤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건국대학교 중장비실험동 407호 남윤주 교수 연구실 내
발행일: 2020년 11월 26일	전화: (02) 2049-6066
http://www.ksli.or.kr	E-mail: ksligeneral@gmail.com

1. 회장님 인사말씀

존경하는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오는 12월 5일 토요일에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인 저희 학회 단독 공부모임(월례회)을 온라인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월 모이던 월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저희 제13대 이사회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어 내년이면 새로운 이사진이 학회를 꾸려 나가게 되어 있는 마당에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도리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12월 월례회 겸 총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총 3편의 일반논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임이지만, 오프라인 월례회와 마찬가지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제14대 이사회가 학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제13대 이사회 임원진을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학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게 될 제14대 새로운 이사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택내 두루 평안하시길 빌며, 12월 5일 토요일 월례회장에서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 홍민표 올림

1. 월례발표회 및 총회 공고

▶ 2020년 월례 발표회는 12월 05일 (토) 오전 9시 30분부터 Zo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월례발표회와 함께 2020년도 총회도 개최되오니, 상임 이사님들을 비롯한 언어정보학회원 선생님들께서는 월례발표회와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12월 05일(토), 9시 30분 ~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발표회
(ID: 763 768 4158 / <https://us02web.zoom.us/j/7637684158>)
- 일정

09:40~10:20	(대학원생 논문발표) A Corpus-based Study of Linguistic Features of Donald Trump's Political Discourse	정 윤 형 (연세대)
10:30~11:00	(일반 논문발표 1) 용례 기반적 접근으로 살펴본 명사'아이'에서 한국어 구어 3인칭 대명사로의 구문화(Constructionalization)	김 아 립 (명지대)
11:10~11:30	2020년도 한국어언어정보학회 총회	
11:30~12:00	(일반 논문발표 2) 한국어 통제구문에서 절과 명사구 논항이 보이는 어순 선호	홍 은 미 (서일대)

(발표 요지문: 본 소식지의 하단 참조)

- 총회 안건: 2020년 학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보고
- 13 대 이사회 명단

홍민표(명지대)	송민영(동국대)	남윤주(건국대)	김미숙(상지대)	김종혁(전북대)
김지은(울산대)	임동식(홍익대)	임동훈(이화여대)	조성은(영남대)	김지혜(한국교원대)
박종철(KAIST)	이상근(고려대)	이영주(서울여대)	전종섭(한국외대)	최인철(경북대)
윤홍욱(제주대)	김윤신(인천대)	송상헌(인천대)	송재목(한국외대)	정수정(충북대)
채명희(조선이공대)	홍문표(성균관대)	강상구(한성대)	곽은주(세종대)	시정곤(KAIST)
신효필(서울대)	이용훈(충남대)	차종열(대전대)	김한샘(연세대)	박소영(부산대)
윤애선(부산대)	윤영은(이화여대)	이해윤(한국외대)	이한정(성균관대)	정소우(성신여대)
최승권(ETRI)	최호섭(단국대)	윤재학(경희대)	위혜경(단국대)	

2. "언어와 정보" 25권 1호 논문 모집

- ▶ 마감일: 2020년 12월 31일(목)
- ▶ 출판일: 2021년 02월 28일(일)
- ▶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회원분께서는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홈페이지 (<http://ksli.jams.or.kr>)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40,000원 (2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2인 심사, 30쪽 분량 기준):
 - 1) 연구비 수혜 논문: 30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4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20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40,000원)
 - 참고
 - 1) 논문 출판 시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를 위한 계좌정보 및 각 연회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협 302-1342-1990-31 윤홍옥 재무이사(한국언어정보학회)
 -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ksligeneral@gmail.com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 연회비가 심사비와 금액이 동일하여 회계 상 혼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시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성함과 함께 연회비 명목임을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4. 2020학년도 월례 발표회 초록

[대학원생 논문발표]

A Corpus-based Study of Linguistic Features of Donald Trump's Political Discourse

Woonhyung Chung
(Yonsei University)

Abstract

So far American president Donald Trump's language has been characterized by easy and repeated words, short sentences and incohesive content. However, several research papers have suggested that his language does not always possess those linguistic features. Previous genre-specific studies revealed that unlike in debates, in campaign speeches classified as the written genre of speech, Trump sometimes employed richer vocabulary and more complex sentences than other candidates or his predecessor (Savoy, 2018; Wang & Liu, 2018). Furthermore, his language tended to be more sophisticated over time or depending on circumstances (Lakoff, 2016; Wang & Liu, 2018).

This study examined Trump's political discourse by genre (oral vs. written genres) and time (during election campaign vs. his presidency). Not only are there a small number of studies that have divided and analyzed his political discourse by genre, but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on his presidential speeches, only focusing on his campaign speeches or an inaugural speech. In order to fill the scarcity, the present work investigated his political discourse by genre and compared it to his three immediate predecessors'. His political discourse during the 2016 election were also analyzed and compared to track the changes over time.

This study built the corpus of Trump's political discourse and his three predecessors' and then compared their linguistic features from three dimensions: lexical complexity, syntactic complexity, and text cohesion. Indices chosen are STTR (Standardized Type/Token Ratio), LD (Lexical Density), and BW (the proportion of big words) for lexical complexity; C/S (number of Clauses per Sentence) and FK-level (Flesch Kincaid Grade Level) for syntactic complexity; and semantic coreferentiality and given/new information for text cohesion. Results of this study have shown that Trump's political discourse tends to be more complex and cohesive in the written genre and after the election than in the oral genre and before the election. Specifically, while his interviews were generally simple in terms of both lexicon and syntax, his presidential speeches indicated lexical/syntactic complexity comparable with those of his three predecessors. Besides, his speeches have tended to become more lexically and syntactically complicated since his election. In terms of text cohesion, his interviews showed higher cohesion than those of his three predecessors, although his speeches' text cohesion was similar to them. These results contest the prevailing assessment that Trump's language is linguistically simple and incohesive, suggest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litical discourse should be redefined by genre in terms of language complexity and text cohesion.

Key words: Donald Trump, presidential speeches, linguistic features, corpus-based study, genre differences

References

- Lakoff, G. (2016). *Understanding Trump*. Available at: <https://georgelakoff.com/2016/07/23> (accessed 17 May 2020).
- Savoy, J. (2018). Trump's and Clinton's Style and Rhetoric during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Quantitative Linguistics*, 25(2), 168-189, DOI: 10.1080/09296174.2017.1349358
- Wang, Y. Q., & Liu, H. T. (2018). Is Trump Always Rambling like a Fourth-grade Student? An Analysis of Stylistic Features of Donald Trump's Political Discourse during the 2016 Election. *Discourse & Society*, 29(3), 299-323. <https://doi.org/10.1177/0957926517734659>

[일반 논문발표 1]

용례 기반적 접근으로 살펴본 명사‘아이’에서

한국어 구어 3인칭 대명사로의 구문화(Constructionalization)

김아림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본 연구는 명사 *아이*와 지시사 *이/그/저*와 결합된 지시사 통합형 [*이/그/저* + *아이*] 구문이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 3인칭 대명사적 기능을 지니는 *애/개/재* 구문으로 발달하는 그 변화 과정에 대해 그 기능적, 의미적, 또한 형태적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용례 기반적(Usage-based) 접근을 통해 21세기 세종 말뭉치의 현대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언어 사용자들의 실제 용례를 통해 보다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해당 구문이 겪는 언어적 변화뿐만 아니라 언어 변화 과정에 대한 보편적 이해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전적인 기술에 의하면 명사 [애]는 [아이]의 음운적 축약형일 뿐, 둘 간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 구문의 실제 용례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두 구문이 등장하는 문맥에 따라 서로 의미/기능적 분포와 경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두 구문의 의미/기능적 분포의 차이는 명사 [아이]가 겪는 구문화(constructionalization) 현상에 의한 것이며, 3인칭 대명사적 기능을 지니는 *애/개/재* 역시 이러한 구문화 현상에 대한 결과물임을 밝힌다.

한국어 통제구문에서 절과 명사구 논향이 보이는 어순 선호

홍 은 미
(서일대학교)

한국어 통제 동사는 두 개의 내부논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다음 (1)과 같은 ‘충고하다’라는 통제 동사는 대상의미역을 갖는 명사 ‘수미에게’와 목표의미역을 갖는 내포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라는 두 내부논향을 가지고 있다.

(1) 엄마는 [수미에게]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이 두 내부논향은 때때로 (명제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음과 같은 어순 변이를 보인다.

(2) 엄마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수미에게] 충고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어순 변이에 대해서 기본 어순(basic word order)과 재배치 어순(scrambled word order)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코퍼스 조사 및 문장 완성 테스트를 실행한 홍은미·윤홍옥(2020)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통제 동사인 ‘부탁하다’, ‘설득하다’, ‘약속하다’, ‘충고하다’의 동사를 대상으로 각각 세종 말뭉치와 문장 완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들 동사의 두 내부논향의 상대적인 길이 차이에 따라 위의 (1), (2) 어순의 출현 빈도가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1)과 같은 어순이 해당 동사의 기본 어순, (2)와 같은 어순이 재배치 어순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설득하다’ 동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어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3) a. 엄마는 [수미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설득했다.

b. 엄마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수미를] 설득했다.

‘설득하다’ 동사에 대해서는 (3b)와 같은 어순이 기본 어순, (3a)와 같은 어순이 재배치 어순이라는 결과를 얻었다.